

불황기, 왜 판타지 소설인가

상업성 방패막이하는 거짓이론의 교두보

백지연 · 문학평론가



이즈음 판타지 소설들은 베스트셀러 제조를 노리는 전략에 의해 독자의 말초적인 오락지향적 성격을 문학에까지 번지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즐기고 소비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일 때 판타지 본래의 고유한 가치는 상실된다.

몇년 사이 문학·만화·영화·방송 드라마·미술·연극 등 각종 문화 장르에서 '판타지 붐'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세기의 끝을 맞는 지점에서 이러한 환상물의 유행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과 혼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는 드라마틱한 꿈과 모험의 세계를 갈구하게 만든다.

몇년 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양귀자의 《천년의 사랑》 역시 멜로드라마와 판타지 소설의 구조를 적절히 결합시켜 독자들이 꿈꾸는 영원한 사랑의 환상을 충족시켜 준 케이스다. 역사적 기록물과 가공적 추리극을 배합시킨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나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판타지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빌려온 소설들이다.

변신과 탈주가 자유로운 초현실세계 탐구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판타지는 존재해 왔지만, 요즘 유행하는 판타지는 보다 분명한 특수성을 지녀 대중문화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경향들을 보여준다. 우리 문학계의 경우, 작년부터 신문지면에서 서점가를 분주하게 하는 효자 상품으로 판타지 소설이 여러번 거론된 바 있다. 판타지 소설의 효시로 매김된 톨킨의 《반지전쟁(The Lord of the Rings)》을 비롯해 미즈노료의 《마계마인전》, 이우혁의 《퇴마록》과 《왜란종결자》, 김예리의 《용의 신전》, 이수영의 《귀환병 이야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판타지 소설 붐을 거세게 일으킨 이영도의 《드래곤 라자》가 그 예다. 특히 《드래곤 라자》는 통신망과 실제 서점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판타지 소설 붐을 확산시켰다.

《드래곤 라자》를 읽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유행하는 판타지들은 적당히 '현실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초현실의 세계를 탐구한다. 여기는 인간과 신이 한판 대결을 벌이며 동물과 사람이 마음대로 몸을 바꾸는, 그야말로 변신과 탈주가 자유자재로 이뤄지는 꿈과 마법의 세계다. 동시에 현대판 환타지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에만 집중된 고전 환타지와 달리 대중문화의 온갖 요소와 특성을 거침없이 모방하고 변형하며 결합시킨다. 스릴러·무협지·공

포물·SF·로맨스 등 각종 문화 요소의 버무림 속에서 만들어지는 혼합장르가 바로 현대판 판타지다.

이러한 판타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도 너무도 선명하다. 판타지는 일단 독자에게 '실재'라는 관념에서 완벽하게 탈출하기를 제안한다.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냐를 따진다면 판타지를 읽을 필요가 없다. 답답하고 지루한 현실로부터 훌쩍 날아올라 마법사와 용과 영웅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 신묘한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상의 근심과 피로를 잊는 것이야말로 판타지 문학이 선사하는 가장 큰 쾌락과 기쁨이다. '왜 판타지를 즐겨 읽는가'라는 질문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인가. 말 그대로 내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닌, 모험과 흥분이 가득한 또다른 세계를 만나고 싶어서 판타지를 읽는 것이 아닌가.

판타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심리를 대변하는 문화물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적인 일들이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잊는다. 판타지는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에게도 지극한 쾌락을 경험하게 한다. 단순한 재현적 묘사로는 복잡한 현실을 포착하기 힘들다는 창작적 고민 속에서 판타지는 놀라운 창작의 마술을 발견하게 한다. 판타지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에 구애받지 않는 기상천외한 사건과 상상력으로 이전의 사람들이 만들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본질적으로 '판타지'는 모든 예술 장르에 공통적으로 잠재한 요소이기도 하다. 문학 작품의 기원인 설화와 신화야말로 판타지의 원형이다. 특히 현대 예술에서 판타지가 부각되는 이유는 현실의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문제와 상관이 깊다. 표현 방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창작자들은 오히려 현실을 떠난 환상과 꿈을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그것이 결핍된 삭막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충격적으로 일깨우고자 한다. 현대 예술가 중에서 이렇듯 무궁무진한 소재가 잠재한 판타지의 영역을 욕심내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판타지는 '표현할 수 없이 난해하고 복잡한 현실' 자체를 환기함으로써 현실의 모순과 길항한다는 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결국 판타지는 환상을 위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위한 환상인 것이다.

상업성을 방패막이하는 거짓이론으로 둔갑

우리 문학의 경우 판타지가 본격적인 장르로 숙성해 고정 독자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영국·미국·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는 환상문학의 장르가 오랜 기간 많은 작가들에 의해 자리잡고 숙성해 오면서 적극적인 존재 가치를 부여받은 바 있다. 그런 예에 비한다면 최근 우리의 문학계에서 이야기되는 판타지의 영역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부 논자들에 의해 '판타지'는 상업성을 방패막이하는 거짓된 이론의 교두보로 활용된다. 베스트셀러 제조를 노리는 출판가의 전략에 의해 독자의 말초적인 소비심리를 해소하는 오락지향적 성격의 문학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 판타지 문학의 우려되는 점이다. 독자뿐만 아니라 판타지를 쓰고 발표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문학의 상징적 역할을 무시한 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즐기고 소비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있다. 판타지를 오락성과 상업성의 기반 위에서만 이해하는 경우 판타지가 본래적으로 지닌 고유한 의의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판타지를 옹호하는 일부 논자들은 판타지가 단순히 현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실감을 줌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으로 현실을 전복하기를 꿈꾸는 장르라고 정의한다. 판타지문학의 기수인 톨킨 역시 좋은 환상소설은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삶의 근본적 가치를 되돌려주는 기적적인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떻게 보면 판타지란 리얼리티의 또다른 이름에 다름아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세계의 리얼리티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존재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판타지는 관습적 리얼리즘 문학의 벽에 부딪친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마법의 지팡이가 될 것이 분명하다. ◆